

## 간호윤리교육과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성찰

박은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 Reflections on Nursing Ethics and Interprofessional Education

Eun-Jun Park\*

Professor, Departments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Aug 10, 2025  
Accepted: Aug 21, 2025

## \*Corresponding author

Eun-Ju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Tel: +82-2-3668-4739  
E-mail: eunjunp@knou.ac.kr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Conflict of interests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Acknowledgements

Not applicable.

## Funding information

Not applicable.

## Data availability

Upon reasonable request, the datasets  
of this study can b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ORCID Eun-Jun Park  
https://orcid.org/0000-0003-1629-7745

## Abstract

This commentary reviews a study on ethics education in Korean undergraduate programs in medicine, dentistry, and nursing. While all three disciplines have shown quantitative growth in ethics education,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Draw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the author points out the limited inclusion of content related to nursing practice and a shortage of qualified nursing ethics educators. The commentar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r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noting that ethical dilemmas in healthcare often require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on. However, undergraduate students currently have few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diverse professional perspectives, which may contribute to conflicts in clinical practice. To strengthen ethics education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commentary recommends policy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guidelines, funding for pilot projects i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professional ethics into accreditation standards. Furthermo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take a leadership role by promoting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on, developing integrated curricula, and establishing faculty development programs.

**Keywords:** ethics, nursing; ethics, medical; bioethic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 I. 서론

최은경의 논문은 국내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학부 윤리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이들 분야의 윤리교육 실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윤리교육에서 전문직 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의학, 치의학, 간호학 모두 교육기관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윤리 관련 교과목의 수, 학점이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하였고, 특히 간호학에서 그 성장이 뚜렷했다. 그러나 여전히 윤리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한 합의 부족,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근거 부족,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전문성 부족, 통합된 커리큘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간호윤리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원 논문에서 제시한 간호윤리 교육에 관한 현황과

**Author contributions**

The article is prepared by a single author.

**Ethics approval**

Not applicable.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간호윤리교육의 실태

최은경의 논문에 따르면 113개 간호대학/간호학과 중 윤리 교과목이 개설된 곳은 91개 학교(80.5%)였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이나 '인문사회의학' 처럼 교과목명에 '윤리'를 포함하지 않지만 윤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간호학개론'이나 '간호관리학' 등의 교과목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모든 간호대학/간호학과에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1]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8개 학습성과 중 하나로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 간호대학/간호학과는 이를 학습성과에 반영하고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모든 간호대학/간호학과에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교육 시간(학점)에 편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간호윤리 교육의 성장에 기여한 요소 중 하나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간호윤리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2021년에 국가시험 8개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개정하였고, 간호윤리 관련 학습목적으로 "간호업무에 기반이 되는 윤리 이론과 규칙, 원칙을 설명하고, 환자권리 옹호를 위한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2]. 이어서 학습목표 대분류인 '간호윤리'를 '간호와 생명윤리의 개념, 윤리적 사고와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윤리의 실무적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간호윤리의 실무적용'은 10개의 구체적 학습목표를 포함하는데, 생명공학, 인공임신증절, 존엄사와 안락사, 장기이식과 뇌사, 말기환자와 관련된 간호윤리문제, 연구윤리문제, 업무의 공정한 분배 관련 윤리문제, 그리고 관계 윤리 측면에서 간호사와 의사, 타 직종, 또는 동료 간호사와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 논문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97개 간호학과 중 윤리 교과목명에 '간호'를 포함하지 않는 곳이 16곳 발견되었고 그중 10곳은 '생명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간호교육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초'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으로[1] 1-2학년에서 '생명윤리'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생명윤리' 교과목은 인공임신증절, 안락사, 장기이식 등 생명의료 이슈에 대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하게 된다[3]. 다시 말해서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윤리 이슈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훈련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지 않는다. 간호사로서 '생명윤리' 학습을 통해 일반인보다 높은 생명윤리 의식을 가지고 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지만 간호사로서 임상 간호 현장의 윤리 문제를 발견하고 전문직 표준에 걸맞게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를 기회는 얻기 어렵다[4]. 간호학생은 기본 임상 지식을 갖추고 임상 현장의 현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간호 전문직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윤리' 교과목을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운영 중이라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에서 간호의 임상윤리에 관해 학습할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간호윤리' 교과목에서 국가시험 학습목표에 포함된 '간호윤리의 실무적 적용'에 포함



된 학습목표 역시 생명윤리 관점에 그치지 말고 이를 임상 간호에 적용하여 간호사로서 알아야 할 윤리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시험 학습목표에서 '존엄사와 안락사가 관련된 간호윤리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엄사나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윤리 주제로서는 적절하지만 임상간호와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돌봄계획,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 방법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간호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 간호윤리 교육의 어려움으로 간호윤리 전공자 부족 문제가 있다[5]. 의학, 치의학에서도 윤리학 전공 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전체 교과목 중 약 1/3로, 대부분 전공자에 의한 윤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간호윤리 전공자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간호대학/간호학과의 대다수 간호윤리 교육자는 책임 시수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나 교수자 개인의 관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임상 교과목 교수자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윤리 이슈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과 달리 간호윤리 교육자는 학생들이 임상 현장의 간호윤리 이슈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적용해 설명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윤리 교육자는 효과적인 윤리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 간호윤리 교육자의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2017년 창설된 한국간호윤리학회의 역할이 증대하다. 한국간호윤리학회는 매년 1회 간호윤리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간호대학/간호학과의 간호윤리 교육자, 임상 현장에서 윤리 이슈에 관심이 많은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한국간호윤리학회가 증추적 역할을 맡아 간호윤리 학습목표 및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간호윤리 교육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전문직 간 윤리교육의 필요성

최은경은 논문에서 윤리교육에서 의학, 치의학, 간호학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전문직 간 교육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전문직 간 교육발전센터(CAIPe)는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을 “두 가지 이상의 전문직이 협력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with each other), 서로로부터(from), 서로에 대해(about)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7]. IPE에 대한 국내외 변화 흐름과 과제 등은 2024년 의학교육논단 특집 기사[8-11]에 잘 제시되어 있다. IPE를 적용한 비임상 주제는 주로 의사소통, 협력, 팀워크 향상이었는데, 국내에서 IPE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IPE 사례가 연구 목적이거나 일회성 교육에 머물러 있다[9]. 특히 윤리교육에 IPE를 활용한 사례가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많지 않다. IPE 윤리교육의 예로 Kim et al.[12]은 윤리적 의사결정 훈련을 위해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함께 임상사례를 활용한 소그룹 토론, 역할극, 토론에 참여하게 하여 긍정적인 학습성적을 얻었다. 또한, 지난 2025년 1월에 진행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의료교육자 역량 강화’ 강좌[13]에서 연세대학교 간호대, 의대, 치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IPE 사례가 발표되었다. 대학원생 대상의 ‘임상의료윤리’와 ‘보건의료 연구윤리’ 교과목에서 IPE를 활용하였다. 국내 보건의료 윤리교육에서 IPE 도입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의료교육자 역량 강화’ 강좌의 참석자 다수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국외의 IPE 윤리교육 사례로는 Wood et al.[14]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약학, 간호학, 치의학, 영양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 무려 13개의 보건의료 전공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온라인 교육으로 윤리 지식 기반을 갖춘 후 여러 전공 분야가 모인 면대면 워크숍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등을 훈련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개별 전공 분야 내부에서 이루어진 윤리교육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전문직의 역할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교육자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IPE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9]. 그 이유로 빠듯한 학사 일정으로 인해 교육 일정 조정이 어려운 점, 타 전공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체 의학 교육과정에서 볼 때 IPE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IPE에 필요한 교수자나 교육자료 등 자원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9].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의 윤리교육에 IPE를 도입할 이유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은 항상 윤리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이슈들, 즉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의 돌봄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는 과학 지식만으로 가능한 순수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환자 삶의 질 관점에서 내려지는 가치 판단이 함께 요구된다. 예컨대, 의학적으로 동일한 상태인 두 사람이 있더라도 각자가 바라는 돌봄 방식은 다를 수 있다. 특히 돌봄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윤리적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간 입장(in-between)에 있으면서 [15] 의사의 치료계획과 일관되면서도 환자의 고유한 돌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입장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간호사는 빈번하게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사는 특정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의사 처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환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의사에게 환자 요구를 이해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윤리교육에 IPE가 필요한 이유는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가 의학 윤리 이슈, 간호 윤리 이슈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16]. 예를 들어 간호사와 의사는 동일한 환자를 두고 무엇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같은 윤리적 이슈를 고민한다. 각 전문직이 갖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윤리 이슈는 어느 하나의 전문직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선의 결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 이슈를 해석하고 접근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환자에게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숨겨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간호사는 주로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의사는 환자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 그러나 서로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직종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의료팀 내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직군은 자신에게 좋은 의견이 있을 때조차도 의사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16]. 보건의료인들이 면허를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IPE 윤리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전문직이 가진 윤리적 가치관, 역할과 책임을 이해한다면 이후 임상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 III. 결론

최은경의 논문에서 제시한 간호윤리교육 현황에 덧붙여 교육자로서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윤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간호윤리 교육에서 생명윤리 이슈보다는 임상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간호윤리 교육자들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IPE 윤리교육을 통해 학부 교육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간 입장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도덕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여러 전문직이 협력하여 최선의 윤리적 판단과 실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 의료윤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인 대상 윤리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교육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IPE 윤리교육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기관 인증기준에 IPE 의무화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간호윤리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장단기 협력 로드맵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IPE 윤리교육을 위한 표준 교재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IPE 윤리교육 표준 모듈 개발, 정기적으로 보건의로 윤리교육 통합 심포지엄 개최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andbook of th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for the year 202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4.
2.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Learning objectives by subject area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eight categories of the National Nursing Licensing Examination.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21.
3. Kwon B, Kim M, Lee S et al. Medical ethics. Hakjisa Medical. 2022.
4. Hattori K, Ito T. Medical ethics: theory and practice. Medical Friend Co. 2015. In: Kim DK, Jeong SH, editors. Rhodos; 2016.
5. Hwang H.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 Med Ethics 2017;20(3):305-316.  
<https://doi.org/10.35301/ksme.2017.20.3.305>
6. Choe K, Kang Y, Lee WY. Bioethics education of nursing curriculum in Korea: a national study. Nurs Ethics 2013;20(4):401-412.  
<https://doi.org/10.1177/0969733012466003>
7. Barr H. Interprofessional education: today, yesterday and tomorrow: a review [Internet]. CAIPE; c2002 [cited 2025 Aug 5]. Available from:  
<https://www.caipe.org/resources/publications/caipe-publications/caipe-2002-interprofessional-education-today-yesterday-tomorrow-barr-h>
8. Han H.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Korean medical education: from individual efforts to structural collaboration. Korean Med Educ Rev 2024;26(2):81-82.  
<https://doi.org/10.17496/kmer.24.022>
9. Park YC, Lee ST, Park K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Med Educ Rev 2024;26(2):83-92.  
<https://doi.org/10.17496/kmer.24.009>
10. Yu JH, Park KH. Challenges for sustainabl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South Korea: insights from key global countries. Korean Med Educ Rev 2024;26(2):93-107.

<https://doi.org/10.17496/kmer.24.012>

11. Kim YJ. Interprofessional education collaboration between Chung Ang Medical School and Sungshin Nursing School. *Korean Med Educ Rev* 2024;26(2):108-117.  
<https://doi.org/10.17496/kmer.24.011>
12. Kim HJ, Koo HY, Park YW, et al. Effectiveness of an inter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for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Korean J Health Commun* 2021;16(1):67-74.  
<https://doi.org/10.15715/kjhcom.2021.16.1.67>
13.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Medical ethics educator competency-building program.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2025.
14. Wood V, Eccott L, Crowell P. iEthics: an interprofessional ethics curriculum. *Pharmacy* 2022;10(1):12.  
<https://doi.org/10.3390/pharmacy10010012>
15. Bishop AH. *Nursing: the practice of caring*. NLN Press; 1991.
16. Hanson S. Teaching health care ethics: why we should teach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together. *Nurs Ethics* 2005;12(2):167-176.  
<https://doi.org/10.1191/0969733005ne773oa>

www.kci.go.kr